

괘불전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공주 마곡사 괘불>

유수란 | 203호 불교회화실 | 18:00~18:30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 마곡사에는 문자가 아닌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하려 했던 석가모니불의 이야기가 담긴 커다란 괘불掛佛이 전합니다. 괘불은 법당法堂이 아닌 야외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열 때 사찰 마당에 걸었던 대형 불화이다. 작게는 4-5m에서 크게는 10m가 넘는 화폭에 그려져서 법당 안의 불화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공주 마곡사 괘불은 조선 숙종 13년, 즉 1687년 5월에 조성된 높이 11.6m, 너비 7.5m의 괘불입니다.

이 대형 화폭의 주인공은 석가모니불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전생부터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화면에 표현된 압도적인 크기는 석가모니불의 위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좌우에는 다소 작게 비로자나불, 노사나불을 비롯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벽지불辟支佛, 여섯 보살, 범천과 제석천, 제자, 천자天子, 팔부중, 사천왕 등 34명의 무리가 화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괘불 중심에 그려진 석가모니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처의 모습이 아니라, 보관을 쓰고 보살처럼 장엄한 모습입니다. 원반 모양과 갖가지 구슬로 장식된 영락은 부처의 몸에서 영롱하게 빛을 발합니다. 석가모니불이 두 손으로 들고 있는 연한 분홍색 연꽃은 보관이나 몸에 걸친 화려한 장식과 대조되어 눈길을 끄니다. 석가모니불이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불법의 진리를 전해줬다는 염화시중拈華示衆에서 유래했습니다. 연꽃을 든 부처는 제자 가섭과 마음이 통했고, 그에게 깨달음의 정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문자나 말에 녹여낼 수 없는 가르침과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우주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공주 마곡사 괘불, 보물 제1260호



제63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5월 15일)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자리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박경은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첫인상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관문인양 어둡고 좁은 터널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다다른 곳. 사방으로 심연의 우주가 펼쳐진 듯한 고요한 공간에 두둥실 떠있는 존재들이 마치 행성 같습니다. 여기저기 한줄기 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얼굴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갈수록 거칠거칠한 화강암의 표면에서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확고한 누군가의 모습이 강한 아우라를 뿜으며 살아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돌과 하나된 생명을 목도하는 것 같은 신기함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감출 수 없는 기쁨에 찬 얼굴이, 또 두건을 뒤집어쓰고 평온함에 잠겨든 얼굴, 그리고 무거운 고개를 떨구고 무언가에 몰입한 얼굴들 그 하나하나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가슴을 두드립니다. “영월 창령사터 오백나한-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특별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나한 석조상들은 ‘반질하고 단단한 거울처럼 견고한 내면의 고요함 속에’ 있고, ‘떠오르는 달덩이와 같은 원만하고 빛나는 기쁨에 가득 차’ 있으며, ‘따뜻한 햇살같은 안온한 평화 속에’ 있고,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진지한 몰입 속에’ 있습니다.

현대미술과 문화재의 본격 콜라보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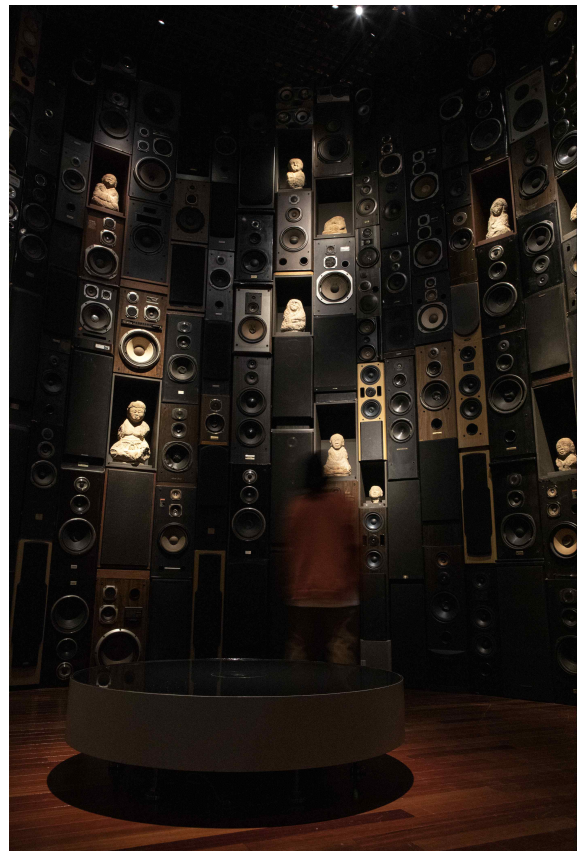
불교佛敎의 진리를 깨우친 성자 ‘나한羅漢’이 일상 속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마주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춘천박물관의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전을 관람객의 사랑과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018년의 전시로 선정하여, 그 서울전을 더욱 새로워진 연출로 선보입니다. 전시 1부는 “성속聖俗을 넘나드는 나한의 얼굴들”이라는 큰 주제 아래 국립춘천박물관의 전시의 개관概觀을 유지했고, 2부 전시는 “일상 속 성찰의 나한”이라는 큰 주제 아래 종교 스피커와 창령사蒼嶺寺 나한상羅漢像으로 구성한 ‘도시 일상 속 성찰하는 나

한’을 새롭게 연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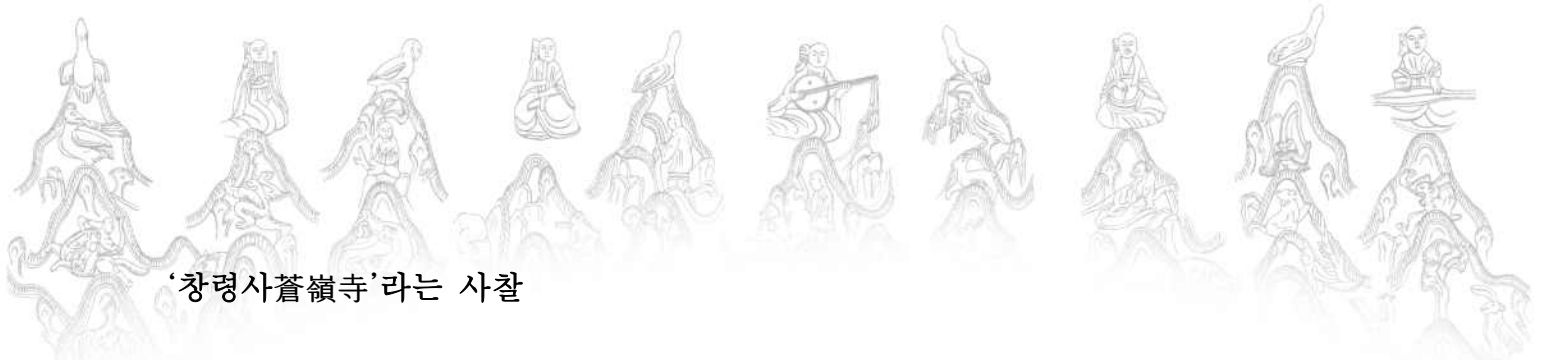
1부 전시 공간은 전시실 바닥을 옛 벽돌로 채우고 그 위로 여러 개의 독립적인 좌대를 세워서 창령사 나한상 32구를 배치하여 연출하는 한편, 2부 전시 공간은 스피커 700여 개를 탐처럼 쌓아올려 그 사이에 나한상 29구를 함께 구성하여 도시 빌딩숲 속에서 성찰하는 나한을 형상화하였습니다. 1부 주제인 ‘자연 속의 나한’과 2부 주제인 ‘도시 속의 나한’의 주제가 대조적이면서도 ‘자아 성찰’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연출함으로써 도시의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아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국립박물관과 설치작가 김승영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거쳐 과거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협업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적 문화컨텐츠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행보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1. 수행하는 나한과 가사를 두른 나한, 고려말 조선초, 강원도 영월 창령사 터 출토, 높이 37.9cm(왼쪽),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도2.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전시전경 (작품설치 김승영)



‘창령사蒼嶺寺’라는 사찰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은 2001년 5월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에서 주민이 그 일부를 발견하면서 오백여 년 잠들어있던 나한상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가 2001~2002년에 정식으로 발굴조사하면서 완형 64점을 포함하여 317점의 나한상과 불보살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터에서는 중국 송나라의 동전 승녕중보崇寧重寶와 고려청자 등이 함께 출토되어 창령사가 고려 12세기 무렵에 세워졌던 사찰임을 확인하였고, "창령사蒼嶺寺" 글자가 새겨진 기와를 통해 절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창령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481년, 1530년)과 『동여비고東輿備考』(1682년경) 등의 기록과 발굴품이 전하여 고려 중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굴된 나한상들은 국립춘천박물관의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복원작업을 거쳐 2018년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과 이번 전시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손세기·손창근 부자가 기증한 명품: 정선의 <북원수회도>

오다연 | 202호 서화실 | 19:00~19:30

명품실에 펼쳐져 있는 서화첩은 1716년 가을, 서울 장의동(지금의 종로구 청운동 일대) 이광적李光迪(1628~1717)의 집에서 열린 동네 원로들의 장수 잔치를 기념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인왕산과 북악산 기슭에 사는 어르신들 중 70세를 넘은 회원들의 장수



정선, <북원수회도>, <북원수회첩> 첫 장, 1716년 이후, 비단에 엮은 색, 2018년 손창근 기증

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광적은 최고령자로 89세였습니다. 서화첩의 첫 장은 <북원수회도北園壽會圖>로,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정선鄭敼(1676~1759)이 그린 그림입니다. 요즘 우리가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듯, 정선은 모임의 장면을 꼼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직 잔치를 시작하기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온 원로들과 아들, 손자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고, 각 집의 시종들은 섬돌 아래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마당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섬

돌 위의 신발과 노인들의 지팡이는 당시 모임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림 다음에는 기로耆老 모임의 회원 명단(좌목座目)이 있고 정선의 외숙부이자 모임을 주선한 박현성朴見聖(1642~1728)의 글과 시가 수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현성의 시를 차운次韻한 회원들의 시 14수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북원수회도첩은 41세의 정선이 제작한 세밀한 기록화와 시를 지은 문인관료들의 서예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양반들의 생활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18세기 대표적인 화가인 정선은 <북원수회도>처럼 꼼꼼한 모임그림보다는 조선 산천을 개성적으로 그린 실경산수화(진경산수화)로 더 유명합니다. 전시 중인 <비로봉도>는 금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표현하면서 그 둥근 모양에 맞게 부드러운 피마준披麻皴으로 그렸고 그 아래 줄지은 중향성衆香城 암봉들은 칼날같은 수직준垂直皴으로 처리하여 극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실제 경물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필법을 선택한 정선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걸작입니다. 정선의 <북원수회도>와 <비로봉도>를 비교 감상하면서 제작 목적에 따라 화가가 다른 양식(스타일)의 화법을 구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각 그림에 담겨있는 조선 후기의 양반 문화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70세를 넘는 것이 드물었던 300년 전, 북원에 다함께 모여 기로를 축하하는 잔치에서는 신선과도 같은 노인들의 풍류를, 실험적인 비로봉 그림에서는 금강산 기행문화 유행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 보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제63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5월 15일)

근대 서화, 봄 새벽을 깨우다(5) 서화가들의 결집과 서화의 대중화

김승익 | 기획전시실 | 19:00~19:30

1910년대 화단은 서화가들의 결집과 단체 결성, 지역분화, 서화 교육의 확대와 대중화 등 무단통치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 서화계가 활짝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1911년 최초의 미술교육기관인 ‘서화미술회書畫美術會 강습소’가 설립되었고, 안중식을 비롯한 당시의 대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서화미술 강습소에서 1920년대 이후 한국 화단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젊은 서화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1910년대 화단의 중심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안중식의 화풍은 이상범, 노수현, 김은호, 변관식, 오일영, 이용우 등 당시 서화미술회에서 공부했던 신진 세대로 계승되었다. 1913년 평양에서는 ‘기성서화미술회箕城書畫美術會’가 결성되었고, 서울에서는 평안도 출신의 서화가이자 천연당사진관을 운영했던 김규진은 1915년 ‘서화연구회書畫研究會’를 열어 서화교육을 시작했습니다.

1918년에는 최초의 근대적 미술 단체인 ‘서화협회書畫協會’가 결성되었는데, 안중식은 초대 회장을, 고희동이 총무를 역임했습니다. 서화협회는 친구서화계의 발전, 동서 미술의 연구, 향학向學 후진의 교육 및 공중의 고취아상高趣雅想의 증진을 목적으로, 휘호회揮毫會와 전람회 개최, 도서 간행, 주문 제자, 강습소 운영 등 서화 대중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서화가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합작合作이라는 한국 근대 서화가들의 특징적인 창작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화가들뿐만 아니라 문학자, 관료들이 함께 그린 합작 그림들은 당시 예술가들의 교유관계와 전통적인 창작 방식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신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안중식 등 10인, <서화미술회 10인 합작병풍>, 1917,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